

각분야 교육 인프라 구축에 '올인'

사람이 희망이다

희망을 심는 단체 3選

인재 불사에 적극적으로 앞섰던 교계 단체들이 이제는 변하고 있다. 사람이 '희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많은 교계 단체들이 다양한 교육과 장학금 지원, 인적 인프라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불교인재개발원과 참여불교계가 연대 산하 (사)불교아카데미, 불교환경연대의 최근 인재불사는 교계내에서도 신선한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불교 인재개발원

불교 인재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될 때마다 그 책임과 의무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곳이 바로 조계종 중앙신도회이다. 재가불자들을 위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불자 사회지도층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불교와 사회의 발전을 이끌겠다는 목적에서다.

허경만 前 국회부의장이 초대 이사장을, 김용철 중앙승가대 교수가 원장을 맡아 불교인재개발원의 진두지휘를 맡았다. 공동발기인으로는 김의정 회장과 박윤호 前 환경처 장관, 황경환 진양유조선대표를 비롯해 각계 인사 50여 명이 참여했다.

불교지도자 인적 네트워크 구성 분야별 '올해의 인재상' 제정도

불교인재개발원은 설립취지를 통해 △불교지도자 인적네트워크 구축 △교육 및 수행 프로그램을 통한 인재 양성 △불교와 사회 발전 화합을 주요 사업으로 선정했다. 그간 뿔뿔이 흩어져 있던 불자들을 발굴하고, 이들이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필요한 곳에서 언제든지 인재를 찾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적재적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불교인재개발원은 출범 후 생태교실, 간화선입문 과정, 출가열반집 대중강좌, 청소년학교 분야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어 매달 한 차례 정책포럼을 개최해 사회 현

안에 대한 불자들의 인식을 높이고, 현안에 대한 불교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올해의 인재상'을 제정해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자 인재를 개발, 육성하고 이들이 불교계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허경만 이사장은 "사회 전면에 노출되지 않은 불자들을 찾아 낼 생각"이라며 "그들을 조직화한 뒤 네트워크를 형성해 응집력을 강화한다면 불교계의 맨파워는 강화될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 불교인재개발원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불교인재뱅크' 구축, 사회 각계의 불교 인재를 발굴하겠다는 계획의 첫 발을 내딛는 셈이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홍승희)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가칭'불교정보뱅크'의 한 콘텐츠를 차지할 '불교인재뱅크'에는 불자의 인적사항 등 세분화된 정보가 담긴다.

불자인재 양성을 통한 사회발전 견인이라는 큰 목적을 위한 불교인재개발원은 더디지만 힘찬 행보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

여수령 기자

불교 아카데미

올해 5월 31일 세종문화회관 컨벤션 센터에서 의미있는 행사가 열렸다. 참여 불교인재개발원 산하 (사)불교아카데미 주최로 열린 인재불사 비전 선언식이다. 이 자리에서 2대 이사장에 취임한 전우희 이사장(58, 가온감정평가법인 이사)은 '인재불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 이사장은 불교아카데미의 '2010 인재불사 비전'을 통해 구체적인 인재불사 계획을 제시했다.

'2010 인재불사 비전'에 따르면 2008년까지 불교교육전문가 양성을 위해 각 지역별 교육전문가 3인씩을 육성하고, 각 중년별 교육 중사자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포럼을 정립할 계획이다. 여기서는 재가불자교육커리큘럼개발, 응용불교컨텐츠개발 등이 진행된다.

또한 2010년 방송교육대학 설립을 목표로 내년에는 '방송

계층별 전문포교인력 양성 주력 교계 최초 통합리더십 과정 운영

교육대학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 기초 작업을 추진한다. 사찰포교역량 강화를 위한 사찰 설립 매뉴얼 제작 및 사찰건축 불사 모델과 사찰신도회 NGO활동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계층별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통계분석에 의한 타깃대상(강남지역, 전문기관, 전문기관 등)의 전문포교인력양성 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참여불교리더십 포럼을 만들어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는 사회 저명인사들을 초청해 특강을 연다. 장영국 내일신문 대표이사, 김재영 법사 박원준 중앙대 총장, 신익인 업홍

길 등이 강단에 섰다. 11월 6일에는 우희종 서울대 교수가, 12월 4일에는 김홍진 前 국회의원 등이 초청 강사로 나선다.

불교지도자 및 불자들에게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사회사상과 이론, 대안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불교 본연의 상생공동체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연중 진행된다. (사)불교아카데미는 불교계 최초 통합리더십 과정 '마이 리더십 클럽'도 운영한다. '53도반과 함께 떠나는 구별여행을 주제로 불교와 리더십, 경영을 접목한 이 프로그램은 내년의 성장과 나눔의 정신을 기반으로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를 시대언어로 재조명하는데 역점을 뒀다. 계층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불교계의 지도자 양성을 하겠다는 의도다. 이외에도 불교아카데미는 주먹구구식 사찰 운영에서 벗어나도록 사찰 주지 및 실·국장, 관리자급 재가 중무원들을 대상으로 경영관리자 과정과 불교 실무인력 양성 인턴십 과정도 준비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불교 환경연대

지난해부터 불교환경연대는 사업 비중이 인재불사 양성 교육과 선발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불교환경운동은 환경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더불어 불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전문적인 교육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불교환경운동의 새 지평을 열어갈 미래의 동량들이 환경관련학과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인재 발굴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연구기금 지원책이다. 불교환경과 생태문제에 관심있는 유능한 인재를 발굴 육성을 위해 10명 내외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3000만원 내외의 연구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인재불사사업은 불교계 시민사회단체가 실시한 연구기금 지원 사업 가운데 가장 큰

불교환경 우수 논문 장학금 수여 환경전문 자원 봉사자 양성 예정

규모다. 환경과 생태에 관심 있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불자들을 독려하고 육성해 불교환경에 대한 다양하고 효율적인 사업안을 연구 개발하겠다는 복안에서다. 연구 주제도 △불교와 환경 △불교환경전에 나타난 생태사상 스프린 사찰 가꾸기 △환경 대안 연구 등이다. 올 9월에는 지원자들중 우수 연구 논문을 선발해 연구장학생 2명, 환경관련학과생 6명, 환경활동가 4명 등 총 11명에게 2000만원의 불교환경 장학금을 수여 했다.

내달안으로 교계 최초의 환경전문 자원봉사단체인 '초록봉

사단'도 창립할 예정이다. 초록봉사단은 △불교환경인문 네트워크 구축 △불교와 지역·시민사회 소통 채널 △불교환경연대 성장 동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팀장교육, 보수교육 등을 통해 환경전문 자원봉사자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불교환경연대는 지난 5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센터로 지정받아 초록봉사대원은 활동실적이 전산 관리되며, 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비해 상해보험에도 무료로 가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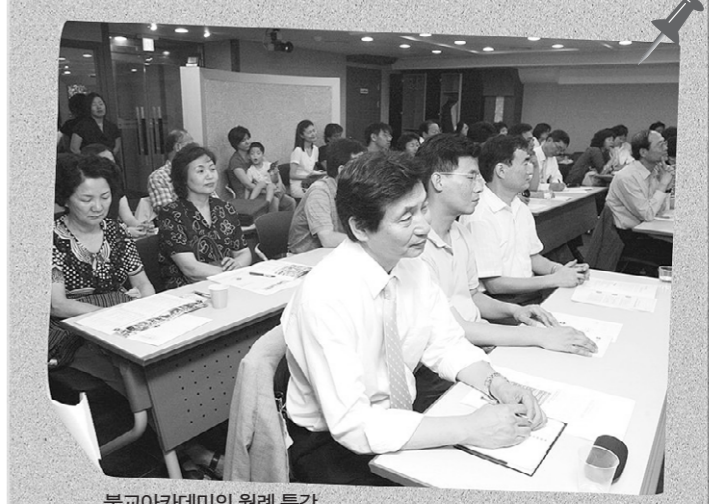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는 4월 25일 조계사 교육관에서 '제1기 불교환경 자원봉사자 기본교육'도 실시했다.

불교환경연대 정우식 사무처장은 "올해를 기점으로 환경 인재 불사에 치중해 인력 양성 교육과 인적 네트워크 조직 구성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불교인재개발원의 워크숍 장면



불교아카데미의 월례 특강.



불교환경연대의 빈그릇 운동.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중구로 인국동 175-67 인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7 온라인광고 애드부디피아 http://ad.buddhapia.com
FAX (02)737-0696 온라인서점 예시어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지사안내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영주지사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고승초청 철야용맹정진 대법회

— 제주 약천사 —

및 제주지역 태풍 나리 피해 수재민 위로공연

일시 2007년 10월 23일 화요일
장소 대한불교조계종 제주 약천사

초청 고승 법사

- 월운 큰스님 봉선사 조실
- 대웅 큰스님 지리산 원각사 해동선원장
- 설정 큰스님 수덕사 덕승총림 수좌
- 지하 큰스님 전 조계종 총의회장
- 월탄 큰스님 청주 용화사 주지
- 해인 큰스님 약전사 회주
- 지선 큰스님 백양사 유나
- 산다미(미얀마) 한국 미얀마 선원장

선전 스님 정혜사 임승
무애 스님 수덕사 총무

제 1부 예불 및 법문
23일 밤 (6시 30분 ~ 8시)
• 예불 / 정근
• 법문 / 월운 큰스님

제 2부 수재민 위로공연
23일 밤 (8시 30분 ~ 10시 30분)
• 예술 공연단
• 영산회상 예술포교단 마술쇼, 오복공연 등
• 무심지보살
• 서귀포 만담꾼
• 특별출연 : 전원주, 선우용녀

제 3부 철야용맹정진 대법회
23일 밤
• 11시 : 정진 법문(수좌스님들)
• 12시 ~ 3시까지 철야용맹정진 (스님들과 참가 대중들이 모두 함께 큰법당에서 철야용맹정진 합니다.)

제 4부 천도제 및 희망
24일 새벽
• 4시 ~ 6시까지 예불 및 천도제
• 집전 : 해인 큰스님 및 영산회상 예술포교단

대한불교 조계종 極樂道場 藥泉寺 | 문의 064) 738-5000 | www.yakchunsa.org